**소매치기**

2013210061 채윤병

이 영화는 스릴러가 아니다. 곧 이 영화는 스토리로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토리는 공허하다. 미셸은 기이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끊임없이 영웅심에 빠져 살아간다. 마치 나의 모습과 같다. 어쩌면 모두의 모습과도 같다.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거나 주변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는 미셸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일으킨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그와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순. 이러한 모순을 영화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순 뒤의 깨달음이지만 이러한 모순을 정확히 통찰하는 것이 감독의 몫이었다. 끝까지 잡히지 않을 것이라 믿는 모순, 어머니의 지갑을 훔치지만 어머니가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모순을 드러내며 감독은 우리 삶의 모순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버려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감독은 인물을 통해 질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답은 질문의 불행이다. 브레송도 그에 대한 대답은 들려주지 않고 그저 음악으로 대체할 뿐이다. “알고 있는 문제를 왜 물어보니?”라고 되묻는 것처럼 그는 침묵을 지킨다. 하지만 영화인 브레송은 영화에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 하며 답을 알린다. 영화를 보며 빛이 만드는 그림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계속 되는 그의 모순된 행동들, 인물들의 눈물들은 영화 속에 관계를 맺으며 답을 한다. 마지막엔 암전 상태에서 음악만 들려주며 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시간을 준다.

소매치기는 스릴러도 아니며 사랑에 대한 영화도 아니다. 단 몇 십분 만으로 인간의 모든 시간을 표현한 듯한 느낌이다. 각자만의 영웅주의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살 뿐이다. 우린 모두 밖으로 나와야 한다. 괴델이 불완전성의 원리를 통해 말한 것처럼 안에선 증명할 수 없다. 미셸은 소매치기에서 벗어난 후에 잔느에게 간다. 소매치기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자유로운 기분을 미셸은 느끼는 듯 하다. 밖으로 나온 후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미셸이 자유로움을 느끼듯 이 영화는 자유의 길을 소개해주었다. 부끄럽고 모순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기를 브레송은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닐까?